

汪機의 營衛論 및 醫案에서 나타난 溫補醫學思想

성지영¹ · 윤창열^{1*}

汪機의 營衛論 및 醫案에서 나타난 溫補醫學思想

成智英¹ · 尹暢烈^{1*}

¹大田大學校 韓醫學科 診斷學教室

汪機(1463-1539), 字省之, 號石山居士, 明徽州祁門人, 新安醫家中最有代表性的人物之一. 幼攻儒學, 后以范仲淹良相良醫之說爲信念, 棄儒學醫. 汪機在繼承朱丹溪學術思想的同時, 針對當時濫用滋陰降火的時弊, 對朱丹溪的‘陽有餘陰不足’之說作了新的闡述. 又根據營氣由脾胃水穀之氣所化生, 發揮李東垣的脾胃學說, 強調了營氣與脾胃的關係. 對參, 芪有獨到的見解和體會. 他用參芪不僅是爲了一般地補氣, 同樣也考慮到補陰血的方面, 是汪機用參芪的一大特色.

汪機行醫數十年, 臨床經驗豐富, 強調四診合參, 非常重視辨證察形.

關聯辭: 汪機, 營衛論, 參芪說, 培元固本

I. 緒論

汪機의 字는 省之이고, 明 天順7년(1463년)에 출생하여 嘉靖18년(1539년) 까지 살았다. 明나라 중엽에 활동한 新安醫學을 대표하는 의가이다. 汪機가 살았던 新安地域은 지금의 安徽省 徽州地區로 지역적으로 또한 시대적으로 丹溪學說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지역적으로 新安지역은 丹溪의 고향인 浙江 義烏의 서쪽으로 明나라 때 『丹溪心法』을 校訂한 程充과 『丹溪心法附餘』를 類集한 方廣이 모두 汪機와 同鄉인 新安의 休寧人이라는 사실에서도 잘 알 수가 있다¹⁾. 丹溪의 陽有餘陰不足論은 본래 南宋 때 『和劑局方』에서 香燥한 藥을 濫用하는 폐단을 바로잡은 것이었는데 丹溪學說이 盛行한 이후 많은 의가들이 丹溪의 滋陰說을 집착하여

苦寒한 藥을 지나치게 사용하여 元氣를 손상시키는 점차 새로운 폐단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丹溪의 陽有餘陰不足論을 단편적으로 이해하여 滋陰降火를 하기 위해 黃柏, 知母 등의 苦寒한 藥을 妄用하였고 더 나아가 甘溫助陽하는 藥은 조금이라도 감히 가볍게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時弊를 바로잡기 위해 의 학계에서는 새로운 變革을 필요로 하였으며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汪機의 學說이 출현하게 된 것이다.

汪機는 營衛論을 지어 人蔘, 黃芪는 補陽할 뿐만 아니라 補陰도 한다는 독창적인 견해도 제시하였다. 또한 人蔘, 黃芪는 補脾胃하는 聖藥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東垣의 脾胃學說을 계승 발전시킨 것이다. 汪機의 營衛論과 培元固本の 관점은 그의 제자 黃古潭을 통해 孫一奎에게 전수되었다. 孫一奎의 “命門動氣說”은 왕기의 脾胃元氣를 배양하여 근본을 견고하게 하는 것에서 命門의 元氣를 중시하는 쪽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明代前期 의학은 위로는 金元四大家의 의학

* 교신저자 : 윤창열 대전대학교 원전학교실

E-mail : yooncy@dju.kr

투고일 : 2013년 1월21일 확정일 : 2013년 2월6일

1) 儲崇華 主編, 新安醫籍叢刊, 中國 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1995, p.1-2.

을 계승하고 朱丹溪의 滋陰學說이 가장 盛行한 시기였으며 後期는 孫一奎, 趙獻可, 張介賓, 李中梓 등으로 대표되는 溫補學派의 溫補學說이 유행하였다. 명대 중엽은 과도기의 단계로써 汪機의 營氣를 補하고 培元固本하는 학설은 앞시대를 계승하여 뒷시대를 열어 놓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왕기의 『石山醫案』에 있는 營衛論과 醫案을 통해 그의 溫補醫學思想을 연구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II. 本 論

汪機는 명대에 태어나 금원시대의 학문을 깊이 연구하였다. 그는 丹溪의 학문을 따랐으나 苦寒한 약으로 병을 치료하는 것에 얽매이지 않았으며 더욱 東垣의 脾胃元氣를 중시하는 것을 수용하여 朱丹溪와 李東垣의 설을 결합하여 營衛論을 창시하였다. 임상방면에서 내과, 외과, 부인과, 침구과 등 각 과에서 모두 元氣에 근원을 두고 인삼과 황기를 사용하는 것을 중시하여 풍부한 치료 경험을 쌓았다.

1. 營衛論과 參芪를 活用한 培元固本思想

(1) 營衛論

汪機는 의학이론 방면에서 朱丹溪의 ‘陽有餘陰不足論’을 계승하여 日,月을 예로들면서 사람의 “氣常有餘, 血常不足”을 이끌어 내었다. 또한 朱丹溪의 의학사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朱丹溪가 오로지 陰虛로만 論治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²⁾.

若遇有病氣虛則補氣하고 血虛則補血하니 未嘗專主陰虛而論治라³⁾

만약 기허병을 만나면 기를 보하고 혈허병을 만나면 혈을 보할 것이니 일찍이 오로지 음허를 주장해서 치법을 논

한 것이 아니다.

丹溪則曰 右脈不足하면 補氣藥多於補血藥하고 左脈不足하면 補血藥多於補氣藥이라 하니 丹溪固不專主於血矣라⁴⁾.

단계가 말하기를 우맥이 부족하면 보기하는 약을 보혈하는 약보다 많이 사용하고, 좌맥이 부족하면 보혈하는 약을 보기하는 약보다 많이 쓴다고 하였으니 단계가 진실로 혈만을 주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朱丹溪가 氣虛의 病證에 氣를 補하였고 血虛의 病證에 補氣血生하였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汪機는 陰不足은 陰氣를 保護하여야 하는 것으로 함부로 消耗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당시 성행하던 모든 疾病을 陰虛라고 여겨 甘溫助陽藥을 사용하지 못하고 滋陰藥을 濫用하는 현상을 바로잡고 甘溫補氣助陽 할 것을 주장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何世人昧此하여 多以陰常不足之說로 橫於胸中하여 凡百諸病을 一切主於陰虛하고 而於甘溫助陽之藥은 一毫不敢輕用하니 豈理也哉리오⁵⁾”

어찌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어두워 흔히 음이 항상 부족하다는 학설을 가슴에 담아두고 모든 병을 한결같이 음허하다고 주장하고 감온하여 양기를 돕는 약은 터럭만큼도 감히 가볍게 쓰지 않으니 어찌 이것이 이치인 것인가

또한 陽氣를 補하는 것을 중시하였으며 陽氣를 營과 衛로 구분하였다. 營氣의 不足을 百病이 生하는 根源으로 여기는 독특한 견해를 강조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2) 윤창열, 韓中醫學各家學說, 주민출판사, 2006, p.410.

3) 高爾鑫, 汪石山醫學全書 石山醫案,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5.

4) 高爾鑫, 汪石山醫學全書 石山醫案,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5.

5) 高爾鑫, 汪石山醫學全書 石山醫案,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5.

“予曰 陽有餘者是 指衛氣也라. 衛氣는 固無待於補어니와 而營之氣도 亦謂之陽하니 此氣는 或虛或盈하니 虛而不補면 則氣愈虛怯矣라 經曰 怯者著而成病이 是也라.⁶⁾”

내가 이르기를 양이 유여하다는 것은 위기를 가리키는 것이다. 위기는 진실로 보할 필요가 없지만 영기도 또한 양이라 이르니 이 기(영기)는 허할 때도 있고 실할 때도 있으니 허한데 보하지 않는다면 기가 더욱 허약하게 된다. 경에서 이르기를 “허약한 것이 붙어서 병이 된다” 하였으니 옳은 말이다.

古人은 於營字下에 加一氣字하니 可見 衛固陽也며 營亦陽也라 故로 曰血之與氣는 異名而同類라하니라. 補陽者는 補營之陽이오 補陰者는 補營之陰이라.⁷⁾”

옛사람은 ‘영(營)’이라는 글자 아래에 ‘기(氣)’자를 더했으니 가히 위(衛)는 본래 양이지만 영(營)도 역시 양이 된다. 그러므로 “혈과 기는 명칭만 다를 뿐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양(陽)을 보하는 것은 영기의 양(陽)을 보하는 것이고 음(陰)을 보하는 것은 영기의 음(陰)을 보하는 것이다.

그는 또 “古人은 於陰字下에 加一氣字하니 可見陽固此氣어니와 陰亦此氣也라 故曰陰中有陽하며 陽中有陰하니 陰陽은 同一氣也라⁸⁾”고 하여 陰陽에 氣라는 글자를 넣은 陽氣와 陰氣는 모두 氣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陰가운데 陽이 있고, 陽가운데 陰이 있는 것이니 陰陽이 모두 同一氣라고 주장하였다. 즉 陰陽도 氣라는 글자를 넣어 陰氣 陽氣의 氣라고 생각한 것이다.

朱丹溪의 陰虛는 陰인 營을 補하여야 하는데, 汪機는 營을 營氣로 보아 陽에 속한다고 생각하였으므로 人蔘과 黃芪를 사용하여 治療하여야 한다고 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是知人蔘黃芪補氣는 亦補營之氣니 補營之氣는 即補營也오 補營은 即補陰也니 可見人身之虛는 皆陰虛也라.⁹⁾”

이것으로 인삼, 황기가 기를 보하는 것은 또한 영(營)의 기(氣)를 보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니 곧 보영(補營)이고 보영은 곧 보음(補陰)이니 가히 사람 몸의 허는 모두 음허임을 알 수가 있다.

(2) 參芪說

汪機는 臨床에서 人蔘과 黃芪를 많이 사용하였으므로 補氣를 主張하였다고 할 수 있다. 『營衛論』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經曰陰不足者는 補之以味라하니 參芪味甘하고 甘能生血하니 非補陰而何오? 又曰陽不足者는 溫之以氣라하니 參芪氣溫하야 又能補陽이라 故로 仲景曰氣虛血弱하면 以人蔘補之라하니 可見參芪는 不惟補陽이오 而亦補陰이라. 東垣曰血脫益氣라하고 仲景曰陽生陰長이라하니 義本諸此라. 世謂參芪補陽不補陰은 特未之考耳라.¹⁰⁾”

경에서 이르기를 “음(陰)이 부족한 사람은 오미로써 보한다”고 하였으니 인삼, 황기는 미가 감(甘)하고 감미는 생혈(生血)하니 보음이 아니고 무엇인가. 또 이르기를 “양기가 부족한 사람은 기(氣)로써 따뜻하게 한다”라고 하였으니 인삼, 황기는 기가 온(溫)하여 또 능히 양기를 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경이

6) 高爾鑫, 汪石山醫學全書 石山醫案,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65-66.

7) 高爾鑫, 汪石山醫學全書 石山醫案,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65-66.

8) 高爾鑫, 汪石山醫學全書 石山醫案,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6.

9) 高爾鑫, 汪石山醫學全書 石山醫案,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6.

10) 高爾鑫, 汪石山醫學全書 石山醫案,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6.

“기가 허하고 혈이 약하면 인삼으로 보한다”고 하였으니 인삼, 황기는 양기를 보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음기도 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원이 “혈이 빠져나가면 기를 더해준다”하였고 중경이 “양이 생겨나면 음이 자라난다”고 하였으니 뜻이 여기에 근본한 것이다. 세상에서 “인삼, 황기는 양기만 보할 뿐 음기는 보하지 못한다”고 이르는 것은 단지 아직 고찰하지 못했을 따름이다.

汪機는 東垣과 仲景의 말을 인용하여 人蔘과 黃芪가 補陽 할 뿐만 아니라 補陰한다는 것을主張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王綸은 朱丹溪의 滋陰說에 偏着하여 人蔘과 黃芪 등의 補氣藥物을 복용하면 害가 된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明醫雜著』에 있는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若酒色過度하여 傷損肺腎眞陰하여 咳嗽 吐痰 衄血 咳血 咯血 等症은 此皆陰血虛而陽火旺也라. 宜甘苦寒之藥으로 生血降火니 若過服參 芪等甘溫之藥하면 則死不治라. 蓋甘溫助氣하고 氣屬陽하니 陽旺則陰愈消故也라. 又云 咳嗽見血은 多是肺受熱邪라 氣得熱而變爲火하고 火盛而陰血不寧하여 從火上升이니 治宜滋陰瀉火오 忌用人參等補氣之藥이라¹¹⁾”

만약 주색을 지나치게 하여 폐와 신장의 진음을 손상시켜 기침하고 담을 토하며, 코피가 나고 기침할 때 피가 나오며, 각혈을 하는 증상 등은 이것은 모두 음혈이 허약해져서 양화가 왕성한 것이다. 마땅히 감고(甘苦)하고 한(寒)한 성질의 약으로 피를 생하고 화를 내려야만 하니 만약 인삼, 황기 등의 감온(甘溫)한 약을 지나치게 복용하면 치

료하지 못하여 죽게 된다. 대개 감온한 약은 기(氣)를 도와주고 기(氣)는 양에 속하니 양이 왕성하면 음이 더욱 소멸되기 때문이다. 또 이르기를 “기침을 하면서 피가 나오는 것은 대부분 폐가 열사(熱邪)를 받은 것이다. 기(氣)가 열(熱)을 얻으면 변해서 화(火)가 되고 화(火)가 성하면 음혈(陰血)이 편안하지 못하여 화(火)를 따라서 상승하니 치료는 마땅히 음(陰)을 불러주고 화(火)를 사할 것이요 인삼 등 보기(補氣)하는 약을 사용하는 것은 삼가 해야 한다.

汪機는 이를 반박하기 위하여 『石山醫案·辨明醫雜著忌用參芪論』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茲取丹溪嘗治驗者하여 以證之라. 一人이 咳嗽 惡寒하며 胸痞 口乾하며 心痛하며 脈浮緊而數에 左大於右라. 蓋表盛裏虛하고 聞其素嗜酒肉有積하고 後因行房涉寒하며 冒雨忍饑라가 繼以飽食이라. 先以人參四錢 麻黃連根節錢半으로 與二三帖하니 嗽止寒除오 改用厚朴 青陳皮 瓜蒌 半夏爲丸하여 參湯送下하니 二十服而痞除라. 夫既咳嗽嗜酒면 不可謂肺無火也오 復因行房感冒면 不可謂陰不虛也오 初服人參四錢하고 再用參湯送藥면 不可謂不多服也어늘 何如不死오? 又一人이 患咳嗽 聲啞어늘 用人參 橘紅 各錢半 半夏曲一錢 白朮二錢 知母 瓜蒌 桔梗 地骨皮各五分하고 復加黃芩五分하여 入薑煎하고 仍與四物加炒柏 童便 竹瀝 薑汁하여 二藥晝夜相聞하니 服兩月 到聲出而愈라. 夫患乾咳嗽聲啞면 不可謂肺無火邪也오 不可謂陰不受傷也오 服人參兩月이면 不可謂不多也어늘 又何如不死오? 又一壯年이 因勞倦不得睡하며 咳痰如膿하며 聲不出이라. 時春寒하여 醫與小青龍湯하니 喉中有血絲하고 腥氣

11) 高爾鑫, 汪石山醫學全書 石山醫案辨明醫雜著忌用參芪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11.

逆上하며 漸有血線自口右邊出하야 晝夜十餘次라. 脈은 弦大散弱하고 左大爲甚이라. 此勞倦感寒이어늘 強以辛甘燥熱之劑로 動其血이라 不治면 恐成肺痿라. 遂以參 芪 歸 朮 芍藥 陳皮 生甘草 帶節麻黃으로 煎入藕汁하야 服二日하니 嗽止라. 去麻黃與四日하니 血除라. 但脈散未收하고 食少倦甚일새 前藥에 除藕汁加黃芩 砂仁 半夏하니 半月而愈라. 夫嗽痰如膿 聲不出者는 不可謂肺不熱也오 又以甘辛燥熱動其血이면 不可謂血不病也오 服參芪가 亦不可謂不多也어늘 又復何如而不死오?12)”

이에 단계가 일찍이 치료하여 효과를 본 것을 가지고 증명해 보겠다. 어떤 한 사람이 기침하고 추위를 싫어하며 가슴이 답답하고 입이 마르며 가슴이 약간 아프고 맥이 부근(浮緊)하면서 삭(數)한데 왼쪽이 오른쪽 보다 대(大)하였다. 이 병은 대체로 표(表)는 성하고 이(裡)는 허하며 그가 평소에 술과 고기를 좋아하여 적(積)이 있고 뒤에 방사를 하고 찬물을 건넜으며 비를 맞고 배고픈 것을 참다가 이어 포식을 했다는 말을 들었다. 먼저 인삼 4돈, 뿌리마디까지 연결된 마황 반 돈을 2~3첩 주니 기침이 그치고 오한증이 없어졌다. 처방을 바꾸어 후박, 청피, 진피, 과루, 반하로 환약을 만들어 인삼탕으로 먹으니 20번을 먹음에 비(痞)증이 제거되었다. 대저 이미 기침을 하고 술을 좋아하였다면 폐에 화(火)가 없다고 할 수 없고 다시 방사를 행하고 감기가 들었다면 음이 허약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으며 처음 인삼 4돈을 먹고 다시 인삼탕으로 약을 먹었다면 인삼을 많이 먹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는데 어찌하여 죽지 않았는가?

또 한사람이 기침을 하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는데 인삼, 굴홍 각 반돈, 반하곡 1돈, 백출 2돈, 지모, 과루, 길경, 지골피 각 5푼에다가 다시 황금 5푼을 가하여 생강을 넣어 달였고 또 다시 사물탕에 볶은 황백, 동변, 죽력, 생강즙을 넣고 달여 2가지 약을 밤낮으로 먹게 하니 먹은지 2달 만에 소리가 나오면서 나왔다. 대저 마른 기침을 하고 소리가 안나왔다면 폐에 화사(火邪)가 없었다고 말할 수 없고, 음(陰)이 손상을 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으며, 인삼을 2달 동안 먹었다면 많이 먹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는데 또 어찌 죽지 않았는가?

또 한 중년의 사람이 노권(勞倦)하여 잠을 자지 못 하고, 기침할 때 고름 같은 담이 나오며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 때는 봄이었는데 날씨가 추워서 의사가 소청룡탕을 주니 목구멍 속에서 실 같은 피가 나오고 비린내가 거슬러서 올라오며 점차로 혈선(血線)이 입의 오른쪽으로부터 나와 밤낮으로 10여 차례 이르렀다. 맥은 현대산약(弦大散弱)하였고 왼쪽이 아주 대(大)하였다. 이것은 노권해서 감기가 든 것인데 억지로 신감조열(辛甘燥熱)한 약으로 그 피를 동하게 한 것이다. 치료하지 않으면 폐위증이 될까 염려되었다. 이에 인삼, 황기, 당귀, 백출, 작약, 진피, 생감초, 마디가 있는 마황에 연뿌리즙을 넣고 달여 2일을 먹으니 기침이 그쳤다. 마황을 제거하고 4일을 주니 피는 제거되었으나 단지 맥이 흩어져 수렴되지 않고 음식을 적게 먹고 몹시 피곤하여 앞의 약에다가 연뿌리즙은 빼고 황금, 사인, 반하를 넣고 먹으니 반 달 만에 치료되었다. 대개 기침할 때 고름 같은 담이 나오고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은 폐가 열(熱)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고,

12) 高爾鑫, 汪石山醫學全書 石山醫案辨明醫雜著忌用參芪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12.

또 감신조열한 약으로 그 혈(血)을 동하게 했다면 혈이 병들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으며 인삼, 황기를 먹은 것이 또한 많지 않다고 말할 수 없건만 또 다시 어찌하여 죽지 않았는가

丹溪가 表盛裏虛한 증상을 치료한 醫案과, 咳嗽, 聲啞의 질환을 치료한 醫案과, 勞倦하여 잠을 못자고, 기침할 때 고품 같은 痰이 나오는 환자를 醫師가 小青龍湯을 잘못 투여하여 喉中에 血絲가 있고, 腥氣逆上하게 된 증상을 치료한 醫案에서 적지 않은 양의 人蔘과 黃芪를 사용하여 治療한 실례를 반복적으로 열거하였다. 그러므로 人蔘과 黃芪는 補氣할뿐만 아니라 補血도 하며, 補火뿐만 아니라 瀉火한다는 이치를 증명한 것이다. 人蔘과 黃芪가 補陰血할 수 있다는 주장은 汪機의 독창적인 견해이다.

그리고 『石山醫案·石山居士傳』에서 “人蔘雖溫이나 雜于酸苦甘寒群隊之中하야 奪于衆勢면 非惟不能爲害오 而反爲之用矣라.¹³⁾”고 하여 人蔘은 비록 溫하지만 酸苦甘寒한 성질 속에 섞여서 성질이 약해지면 해를 끼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용하다고 하였다. 『石山醫案·病用蔘芪論』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又謂蔘芪性溫하니 只恐積溫成熱하고 又謂蔘芪補氣하니 尤恐氣旺血衰라하니 殊不知有是病이면 用是藥이라 有病則病氣當之니 何至於積溫成熱하고 氣旺血傷乎아? 且蔘芪性雖溫이나 而用芩連以監之면 則溫亦從而輕減矣오 功雖補氣나 而用枳朴以制之면 則補性亦從而降殺矣라. 虛(慮의 誤인듯)其滯悶也하야 佐之以辛散하고 慮其助氣也하야 輔之以消導하니 則蔘芪亦莫能縱恣而逞其惡矣라.¹⁴⁾”

또 이르기를 “인삼, 황기는 성질이 온(溫)하니 단지 따뜻한 것이 쌓여 뜨거운 것을 이룰까 걱정된다”라 하고 또 이르기를 “인삼, 황기는 기를 보하니 더욱 기가 왕성해지면 혈이 쇠약해질까 염려된다”라고 하니 너무도 이러한 병이 있으면 이러한 약을 쓴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병이 있으면 병의 기운이 그것을 담당하니 어찌 따뜻한 것이 쌓여 뜨거운 것을 이루고, 기가 왕성해져서 혈이 손상되는데 이를 수가 있는가? 또한 인삼, 황기의 성질이 비록 따뜻하나 황금, 황련으로 감시하게 한다면 따뜻한 성질 또한 따라서 경감이 될 것이요, 효능이 비록 기를 보하나 지실, 후박을 써서 억제시킨다면 보하는 성질이 또한 따라서 감소될 것이다. 막혀서 답답하게 될까 염려되어 辛散(辛散)하는 성질로 佐(佐)약을 삼고, 기를 도울까 염려되어 消導(消導)시키는 약으로 보좌하게 하니 인삼, 황기 또한 방자하게 행동하여 후유증을 드러냄이 없게 될 것이다.

汪機는 人蔘과 黃芪가 性溫하여 積溫成熱하는 것과 補氣하여 氣旺血衰하게 하는 危害를 없애기 위하여 黃芩과 黃連 같은 약으로 溫한 성질을 輕減시키고, 枳實과 厚朴 등을 佐藥으로 사용하여 補氣하는 성질이 잘 소통될 수 있도록 하는 등 人蔘과 黃芪를 使用함에 있어서 다른 藥物과 능숙하게 配伍하였음을 알 수 있다.

汪機는 비록 人蔘과 黃芪로 補氣하는 것을 힘써 주장했지만 臨床에서는 여전히 隨證施治하여 人蔘과 黃芪 만을 남용하지 않았다. 『四庫提要』에서는 “證에 의해 처방을 하고 한 가지 격식에 구애받지 않았기 때문에 매번 효과를 보았다.¹⁵⁾”라고 하였다. 『石山醫案』에서도 人蔘과 黃芪를

13) 高爾鑫, 汪石山醫學全書 石山醫案·石山居士傳,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04.

14) 高爾鑫, 汪石山醫學全書 石山醫案·病用蔘芪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14.

15) (清)永瑤等撰, 四庫全書總目 上冊, 北京, 中華書局出版, 1965, p.874.

많이 사용하는 原因에 대해 그의 제자 程鏞는 “다행스럽게도 왕석산 선생에게서 수업을 받게 되었는데 선생께서 병을 치료할 때 대부분 人參과 黃芪를 많이 사용하였다. 병에 걸리면 여러 의사들의 치료를 거쳐 갖가지 약을 사용하게 되는데 發散藥을 지나치게 잘못 사용하면 降瀉가 많고, 剛燥한 약에 상하면 柔潤함에 손상을 받아 胃氣가 얼마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리하여 선생은 마지막에 人參과 黃芪를 사용하여 위기를 보충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부득이한 것이며 人參, 黃芪에만 치중한 것은 아니었다.”¹⁶⁾라고 하였다.

(3) 培元固本

汪機는 『內經』에서 말한 “邪之所在는 皆爲不足¹⁷⁾”과 “正氣存內에 邪不可干¹⁸⁾” 등의 理論에 根據하여 營氣가 虛한 것이 모든 병의 根源으로 여겨 扶正固本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營氣를 補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營氣를 補하는데 주로 사용한 약은 人參과 黃芪로 脾胃를 補하는 聖藥이다. 『石山醫案·病用參芪論』에서 다음과 같이 논술하고 있다.

“然이나 營氣衛氣는 皆藉水穀而生이라 故로 人絶水穀者는 死하니라. 經曰 脾胃者는 水穀之海라하니 但脾胃受傷不一이라. 經曰 飲食傷脾라 하고 又曰 勞倦傷脾라하고 又曰 憂思傷脾라하니라. 與夫 房勞 大怒 大驚은 莫不皆傷脾與胃也라. 是이로 諸病은 亦多生於脾胃하니 此東垣所以拳拳於脾胃也라. 脾胃有傷에 非藉甘溫之劑면 烏能補哉리오? 經曰 脾胃喜溫而惡寒이라하니 參芪는 味甘性溫하니 宜其爲補脾胃之聖藥也라. 脾胃無傷하면 則水穀可入하야 而營衛有所資하고

元氣有所助하야 病亦不生하야 邪亦可除矣리라.¹⁹⁾”

그러나 영기, 위기는 모두 수곡에 의해서 생겨난다. 따라서 사람이 수곡을 끊으면 죽는다. 『내경』에서 이르기를 “비위는 수곡의 바다이다”라고 하였으니 비위가 손상을 받는 경우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내경』에서 “음식이 비장을 손상시킨다” 하고 또 “노권증이 비장을 손상시킨다” 하고 또 “근심과 생각이 비장을 손상시킨다”고 하였다. 그리고 방로(房勞), 크게 노하는 것, 크게 놀라는 것은 모두 비장과 위를 손상시키지 않음이 없다. 따라서 모든 병은 또한 대부분 비위에서 생기니 이것이 동원이 비위를 중시한 이유이다. 비위가 손상됨에 감온(甘溫)한 약제를 쓰지 않는다면 어찌 능히 보할 수 있으리오. 『내경』에서 이르기를 “비위는 따뜻한 것을 좋아하고 찬 것을 싫어한다”고 하였으니 인삼, 황기는 맛은 달고 성질은 따뜻하니 비위를 보하는 성약이 됨이 마땅하다. 비위가 손상됨이 없으면 수곡이 비위에 들어가 영기, 위기가 도움 받는 것이 있고 원기가 도와주는 것이 있어 병 또한 생기지 않아 사기가 또한 제거될 수 있을 것이다.

즉, 營氣는 脾胃水穀의 氣로부터 生하므로 대부분의 疾病은 脾胃에 의하여 發生하게 된다고 본 것이다. 그러므로 脾胃가 損傷되면 甘溫한 藥物로 治療하는 李東垣의 脾胃學說을 발전시켜 營氣와 脾胃의 關係를 강조하였고, 人參과 黃芪가 補脾胃하는 聖藥이라고 하였다. 汪機가 말한 補營에 대해 汪機의 제자 程鏞는 ‘調元固本’이라고 하였는데 후세사람들이 ‘培元固本’이라고 하는 것이다.

汪機의 培元固本은 溫陽에 注重하였으니, 『石

16) 高爾鑫, 汪石山醫學全書 石山醫案,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14-115.
 17) 全國韓醫科大學原典學教室, 類編黃帝內經, 大田, 周民出版社, 2005, p.435.
 18) 全國韓醫科大學原典學教室, 類編黃帝內經, 大田, 周民出版社, 2005, p.409.

19) 高爾鑫, 汪石山醫學全書 石山醫案病用參芪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14.

山醫案·病用參芪論』에서는 다음과 같이 논술하고 있다.

“故曰 邪氣乘虛而入이라하고 又曰 邪之所湊에 其氣必虛라 하니 是人之安危가 皆由陽氣之虛實也라. 經曰 陽精所降에 其人夭하고 陰精所奉에 其人壽라 하니 蓋陽主發泄 故로 皮膚疏豁而陽氣不藏하야 所以多夭오 陰主收斂 故로 湊理閉密而陰不妄泄하야 所以多壽라 是는 人之壽夭가 亦由陽氣之存亡也라. 經曰 無泄皮膚하야 使氣亟奪이라하고 又曰 冬不按蹠하야 無擾乎陽이라하니 是聖人이 未常不保養其陽矣라. 故로 仲景之傷寒과 東垣之脾胃는 皆以陽氣爲主하니 而參芪는 爲所必用之藥也라.”²⁰⁾

따라서 이르기를 “사기가 허한 틈을 타서 들어온다”라 하였고 또 “사기가 침입하는 곳은 그 기운이 반드시 허하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사람의 안위(安危)가 모두 양기가 허하나 실하나에 달려 있는 것이다. 『내경』에서 이르기를 “양의 정기가 내려오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일찍 죽고, 음의 정기를 받드는 곳은 사람들이 오래산다”고 하였으니 대개 양은 발설(發泄)을 주관하기 때문에 피부가 성글고 열려 양기가 저장되지 않아 일찍 죽는 사람이 많고, 음은 수렴을 주관하기 때문에 주리가 밀폐되어 음이 함부로 빠져나가지 않아 대부분 오래 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의 일찍 죽고 오래 사는 것이 또한 양기의 보존과 소실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내경』에서 이르기를 “피부를 열어 기(氣)로 하여금 자주 빠져 나가게 하지 말라”라고 하고 또 이르기를 “겨울에는 안마와 도인 등을 하지 말아서 양기를 요동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것은 성인이 항상 양기를 보존하고 기르지 아니함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경의 상한과 동원의 비위는 모두 양기를 위주로 삼으니 인삼, 황기는 반드시 써야 되는 약이 되는 것이다.

培元固本사상은 臨床에서도 나타난다. 예를 들면 『醫學原理·癩門』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丹溪謂 此症은 大率宜乎尋痰尋火而治라하니 其論固是라. 但痰火는 不能自生하고 必由中氣不充하야 以致津液凝結成痰하고 鬱而爲火오 且驚亦是氣奪이니 邪乘虛入하니 皆中氣虧敗所致라 治法은 必須調補中氣爲主하고 導火尋痰爲標라.”²¹⁾

단계가 이르기를 “이 증상은 대부분 담(痰)과 화(火)를 찾아서 치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였으니 그 논이 진실로 옳다. 단지 담화(痰火)는 저절로 생기지 않고 반드시 중기(中氣)가 부족해서 진액이 응결되어 담(痰)이 되고 울체되어서 화(火)가 된다. 또 놀람도 또한 기운을 빠지게 하니 사기가 허한 틈을 타서 침입하니 모두 중기(中氣)가 휴손되고 기능을 잃어서 생긴 것이다. 치법은 반드시 중기를 고르게 하고 보충하는 것으로 위주하고, 화(火)를 인도하고 담(痰)을 찾는 것은 표(標)로 삼아야 한다.

이것은 癩癩의 치료도 中氣를 補하는 것을 위주로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또한 癩癩에 대해 『石山醫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今病脾土受傷은 則土中之木이 發而爲病하야 四肢爲之癩癩也라. 蓋脾主四肢

20) 高爾鑫, 汪石山醫學全書 石山醫案病用參芪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 113.

21) 高爾鑫, 汪石山醫學全書 醫學原理癩門,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62.

하고 風主動故也라. 若作風痰治之면 必致於死니 惟宜補其脾土之虛면 則肝木之風이 自息矣라. 遂以參 朮爲君하고 陳皮 甘草 歸身爲臣하고 黃柏 麥門冬爲佐라.22)”

이제 비토가 병들어 손상을 받은 것은 토(土)속의 목(木)이 발동하여 병이 되어 사지가 계종(痠癢)하게 된 것이다. 대개 비는 사지를 주관하고 풍은 움직임을 주관하기 때문이다. 만약 풍담(風痰)으로 치료하면 반드시 죽음에 이르니 오직 마땅히 비토의 허한 것을 보한다면 간목의 풍(風)이 저절로 쉬게 될 것이다. 이에 인삼, 백출로 군약을 삼고, 진피, 감초, 당귀신으로 신약을 삼고, 황백, 맥문동으로 좌약을 삼았다.

이것은 脾가 虛하여 癱瘓이 발생한 것이므로 역시 補脾土하는 인삼, 백출을 君藥으로 삼아 치료해야 한다는 것이다.

眼科方面에서도 汪機는 固本培元의 思想을 연결시켰다.

“經云 五臟六腑之精氣가 皆上注於目而爲之精이라하니 是也라. 但臟腑之氣는 不能自運하고 皆由脾氣轉輸而致니 苟脾氣被傷하야 轉輸失職하면 而目亦無所受矣라. 經云 諸病不能榮養於目이라하니 是也라. 治療之法은 如因風寒 外束者는 當驅風散熱爲主하고 因心不足及血不充者는 宜養血安神爲先하고 因腎水虧乏者는 法當滋陰補腎하고 因脾病不輸者는 法當補中健脾라.23)”

『내경』에서 이르기를 “오장육부의 정기가 모두 위로 올라가 눈에 주입되어 정기를 이루어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

였으니 옳다. 단지 장부의 기는 저절로 움직이지 못하고 모두 비기(脾氣)의 전수(轉輸)를 거쳐 이르게 되니 만약 비기가 손상되어 전수하는 직책을 잃게 되면 눈 또한 기운을 받지 못한다. 『내경』에서 이르기를 “모든 병은 눈을 영양하지 못하게 한다” 라고 하였으니 옳다. 치료법은 만약 풍한이 밖에서 속박을 한 자는 마땅히 풍열을 몰아서 흩어 버리는 것을 위주로 하고 심기가 부족하고 혈이 부족한 자는 마땅히 양혈안신(養血安神)을 우선시하고 신수가 휴손되고 부족한 자는 치료법을 자음보신(滋陰補腎) 해야하고 비(脾)가 병들어 수포(輸布)를 못하는 자는 치법은 마땅히 보중건비(補中健脾) 해야만 한다.

여기서 汪機는 脾氣를 조절하여 血을 補하지 않고 苦寒한 약으로 눈을 치료하게 되면 밖으로 드러난 症狀만 치료하고 根本原因은 치료하지 않는 것이라고 主張하였다.

2. 治療特點

(1) 參芪補陰

『營衛論』에서 살펴보면 汪機는 陰陽의 氣가 不可分하다고 여기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天依形하고 地附氣하니 可見人身之衛는 即天之乾이오 人身之形은 即地之坤이라 營運於臟腑之內者는 營氣也니 即天地中發生之氣也라 故以氣質言하면 衛氣爲陽이오 形質爲陰이며 以內外言하면 衛氣는 護衛於外하니 爲陽이오 營氣는 營養於內하니 爲陰이라 細而分之면 營中에 亦自有陰陽焉하니 所謂一陰一陽이 互爲其根者가 是也라24)”

하늘은 형체에 의거하고, 땅은 기에 붙어있다. 사람 몸의 위기는 하늘은 건으

22) 高爾鑫, 汪石山醫學全書 石山醫案,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10.

23) 高爾鑫, 汪石山醫學全書 醫學原理眼目門,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19.

24) 高爾鑫, 汪石山醫學全書 石山醫案,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6.

로 볼 수 있고 사람 몸의 형은 땅의 곧으로 볼 수 있다. 영이 장부의 내에서 운행하는 것을 영기라 하고, 즉 천지 중에 발생하는 기이다. 고로 기는 위기는 양이며, 형질은 음이다. 내외로 말하면 위기는 체표의 양을 보호하는 것이고, 영기는 체내의 음을 영양하는 것이다. 세분화하면 영 중에서도 역시 음과 양이 있다.

營氣는 陰과 陽의 성질을 兼하고 있어서 傷陰, 傷陽, 傷氣, 傷血을 막론하고 모두 營氣의 損傷으로 본다. 營氣가 傷한 것은 모두 傷營이며, 또한 傷陰이라고 하여 “可見人身之虛는 皆陰虛也라.”고 말하였다. ‘陰虛’의 범위는 廣大하여 모든 虛損證의 總目으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陰虛와 같지 않다고 하였다.

營氣를 補益하는데 人蔘과 黃芪를 위주로 사용할 것을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是知人蔘黃芪補氣는 亦補營之氣니 補營之氣는 即補營也오 補營은 即補陰也니 …… 經曰陰不足者는 補之以味라하니 參芪味甘하고 甘能生血하니 非補陰而何오? 又曰陽不足者는 溫之以氣라하니 參芪氣溫해야 又能補陽이라 故로 仲景曰氣虛血弱하면 以人蔘補之라하니 可見參芪는 不惟補陽이오 而亦補陰이라. 東垣曰血脫益氣라하고 仲景曰陽生陰長이라하니 義本諸此라. 世謂參芪補陽不補陰은 特未之考耳라.”²⁵⁾

이것으로 인삼, 황기가 기를 보하는 것은 또한 영(營)의 기(氣)를 보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니 곧 보영(補營)이고 보영은 곧 보음(補陰)이니 …… 경에서 이르기를 “음(陰)이 부족한 사람은 오미로써 보한다”고 하였으니 인삼, 황기는 미가 감(甘)하고 감미는 생혈(生血)

하니 보음이 아니고 무엇인가. 또 이르기 “양기가 부족한 사람은 기(氣)로써 따뜻하게 한다”라고 하였으니 인삼, 황기는 기가 온(溫)하여 또 능히 양기를 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경이 “기가 허하고 혈이 약하면 인삼으로 보한다”고 하였으니 인삼, 황기는 양기를 보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음기도 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원이 “혈이 빠져 지나가면 기를 더해준다”하였고 중경이 “양이 생겨나면 음이 자라난다”고 하였으니 뜻이 여기에 근본한 것이다. 세상에서 “인삼, 황기는 양기만 보할 뿐 음기는 보하지 못한다”고 이르는 것은 단지 아직 고찰하지 못했을 따름이다.

이는 陽生陰長하는 원리를 들어 參芪가 補陰하는 작용이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2)參芪治雜病

황기는 內傷雜病을 치료하는데 있어 人蔘과 黃芪를 多用하였는데 임상경험이 풍부하고 독창성이 있다.

勞瘵으로 脈數無力하고, 마르고 창백한 자를 옛 사람들은 血虛로 보고 치료 하였으나 汪機는 “汗多은 乃陽虛表失所衛오 消穀善饑는 乃胃虛火乘其土니 皆陽虛也라. 仲景法에 有憑證不憑脈者하니 茲當憑證作陽虛治라. 以參, 芪各三錢이니 ……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은 양이 허하여 표에서 호위하는 바를 잃었기 때문이오, 소화가 잘 되어 자꾸 배가 고프는 것은 위장의 허화가 토(土)를 타기 때문이니 모두 양이 허한 것이다. 중경의 처방에 증상에 의지하여 양허(陽虛)증으로 치료해야 한다. 인삼, 황기 각 3돈을 쓸 것이니 ……)²⁶⁾”라고 하여 땀이 많이 나는 것과 소화가 잘 되고, 자주 배가 고프는 것은 모두 陽虛로 보고 인삼과 황기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오래 痢하고 멈추지 않으며, 脘腹痛이 있고,

25) 高爾鑫, 汪石山醫學全書 石山醫案,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6.

26) 高爾鑫, 汪石山醫學全書 石山醫案,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2.

裡急後重하며, 咳嗽, 發熱이 있고, 脈이 細弱하며 數한 자는 “此腸胃下久而虛也라. 醫用寒涼하야 愈助降下之令하니 病何由安이리오. 經云 “下者舉之, 虛者補之”라 하니 其治此病之法坎인져 遂以參, 朮爲君하야 …… (이것은 장과 위에서 오랫동안 설사를 하여 허약해진 것이다. 의사들이 한량한 약을 써서 더욱 내려보내는 작용을 도우니 병이 어떻게 나올 수 있으리오. 「內經」에서 이르기를 “내려가는 것은 들어 올리고 허한 것은 보한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이 병을 치료하는 방법일 것이다. 드디어 인삼과 백출을 군약으로 하여 …….)²⁷⁾”라고 하여 인삼과 백출을 君藥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膈噎氣壅하는 證이 있고, 맥이 浮洪弦虛한 증상에 대하여 “此大虛症也라. 醫見此脉하고 以爲熱症하야 而用冷藥하면 則愈라 助其陰하야 而傷其陽이오 若以爲痰爲氣하야 而用二陳香燥之劑하면 則愈耗其氣하야 而傷其胃라²⁸⁾”고 하여 虛證에 맥상이 熱證이라하여 冷藥을 사용하면 陰을 도와 陽을 상하게 한다고 하였고 만약 痰이라고 여겨 香燥한 약제를 사용하면 더욱 氣를 상하고, 胃를 상하게 한다고 여겨 인삼을 주로 사용하여 치료하였다.

汪機는 瘧疾, 痢疾, 腕痛, 膈噎, 氣壅, 氣痛, 消渴, 咳嗽, 發斑, 產腫, 血崩, 심지어 陰虛發熱 등의 증까지 폭넓은 치료 경험이 있었고, 인삼과 황기를 독창적이면서도 남다르게 사용하였다.

3. 參芪를 重視한 醫案分析

汪機가 인삼과 황기로 치료한 중요한 의안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一人이 年逾三十하고 神色清減이라 初因傷寒過汗하고 是後兩足時冷하며 身多惡寒하며 食則易饑하며 日見消瘦하며 夢遺甚頻하며 筋骨疼痛하며 久伏床枕하

야 不出門戶라 醫用滋陰降火나 不效라 予視한대 左脈浮虛而緩하고 右脈浮弦而緩하니 此陽虛也라 病者가 言易饑善食하고 夢遺甚頻하니 似屬陰虛라 若作陽虛而用參, 芪면 恐增病矣라 하거늘 予故爲之備論其病하노라

古人이 謂脈數而無力者는 陰虛也오 脈緩而無力者는 陽虛也라 하니 今脈이 皆浮虛弦緩하니 則脈爲陽虛를 可知矣라 參症論之컨대 病屬陰虛면 陰虛則發熱하고 午後屬陰하니 當爲午後則遍身發熱, 惡熱하며 揭胸露手하며 蒸蒸熱悶而煩躁也어늘 今患은 並無是症하니 何得認作陰虛리오 夫陽虛則惡寒하고 雖天暖日和라도 猶恐出門하며 怕寒惡風이라 今患兩足時冷하고 身多畏寒은 皆陽虛之驗矣라 又被汗多亡陽하니 非陽虛而何오 今 日食則易饑하니 非陰虛火動也라 蓋脾胃는 以氣爲主하니 氣屬陽이라 脾胃之陽이 已虛한대 又被苦寒屬陰之藥으로 以瀉其陽하면 則陽愈虛而內空竭하야 須借穀氣以扶助之라 故易饑而欲食하며 食亦不生肌肉也라 經曰飲食自倍하면 腸胃乃傷이라하고 又曰飲食이 不爲肌膚라하니 其此之謂歟인져 夢遺는 亦非特陰虛라 經曰陽氣者는 精則養神하고 柔則養筋이라하니 今陽既虛하면 則陽之精氣가 不能養神而心藏神하고 神失所養하면 則飄蕩飛揚而多夢矣라 陽之柔氣가 不能養筋하면 而肝主筋以藏魂에 筋失所養하면 則遍身筋骨이 爲之疼痛하고 魂亦不藏이라 故夢寐欠安하니 何得而不遺乎아 經曰氣固形實이라 하니 陽虛則不能固하야 而精門失守하니 此遺之所以頻而不禁也라 經曰腎者는 胃之關也라하니 今若助陽以使其固하고 養胃以守其關이면 不患遺之不止矣라 遂用參, 芪各二錢, 白朮一錢, 甘草五分, 枳實, 香附, 山楂, 韭子各五分하야 煎服半年하야 隨時令寒暄升降而易其佐使하야 調理而安하니라²⁹⁾”

27) 高爾鑫, 汪石山醫學全書 石山醫案,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4.

28) 高爾鑫, 汪石山醫學全書 石山醫案,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6.

한 사람이 나이는 30이 넘었고 얼굴색은 맑고 몸은 좀 말랐다. 처음에 상한 병으로 인해 땀을 많이 흘렸고 뒤에 양쪽 발이 때때로 시려우며 몸에서 추위를 싫어하고 밥을 먹으면 금방 배고프로 나날이 몸이 마르며 몽정(夢精)의 증상이 자주 나타나고 근골이 아프고 오랫동안 침대에만 누워있었고 문 밖으로 나가지는 않았다. 의사가 滋陰降火法으로 치료했으나 효과가 없었다. 내가 보니 왼쪽맥이 浮虛而緩하고 오른쪽맥이 浮弦而緩하니 이것은 양허증이다. 환자가 말하기를 “금방 배고프고 밥을 잘 먹으며 몽정증이 아주 심하니 음허증에 속하는 것 같다. 만약 양허증으로 여겨 인삼, 황기를 쓰면 병이 심해질까 걱정됩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그래서 이 병에 대해 상세히 논하고자 한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맥이 數하면서 無力한 것은 음허증이고 맥이 緩하면서 무력한 것은 양허증이다”라고 하였다. 지금 이 맥은 모두 浮虛弦緩하니 양허한 맥이 됨을 알 수가 있다. 증상을 참고하여 논해 보건대 병이 陰虛에 속한다면 음허하면 發熱을 하게 되고 오후는 陰에 속하니 오후가 되었을 때 온몸에서 發熱, 惡熱하고 가슴을 풀어헤치고 손을 드러내며 화끈화끈열이 나면서 답답하고 煩躁하게 되는데 지금 증상은 결코 이런 증상들이 없으니 어찌 陰虛라고 할 수 있는가. 陽虛하면 惡寒하고 비록 날씨가 따뜻하고 화창할지라도 오히려 문밖에 나가기를 싫어하며 추위를 싫어하고 바람을 싫어한다. 지금 양쪽 발이 때때로 시렵고 몸에서 추위를 많이 싫어하는 것은 모두 양허의 증거이다. 또 땀을 많이 흘려 亡陽이 되었으니 양허증이 아니고 무엇인가. 지금 밥

을 먹으면 금방 배가 고프다고 하니 陰虛火動증이 아니다. 대개 비위는 氣를 주장하니 氣는 陽에 속한다. 비위의 陽이 이미 허약한데 다시 苦寒해서 음에 속하는 약으로 그 양을 瀉해버리면 양이 더욱 허약해져서 안에서 텅 비고 고갈되어 穀氣를 벌려서 그것을 도와주려고 한다. 그래서 금방 배가 고프서 밥을 먹으려고 하며 밥을 먹어도 또한 살이 찌지 않는다.『內經』에서 이르기를 “음식을 평소보다 배이상 먹으면 장과 위가 손상된다”라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음식을 먹더라도 살이 찌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을 이르는 것이다. 몽정증도 음허에 속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다.『內經』에서 이르기를 “陽氣는 정밀하면 神을 기르고 부드러우면 筋을 기른다”고 하였으니 이제 만약 양이 허하다면 陽의 精氣가 神을 기르지 못해 心藏神하지 못하게 되고 神이 길러짐을 잃으면 날라가고 흩어져서 꿈을 많이 꾸게 된다. 陽의 柔氣가 筋을 기르지 못하면 肝은 筋을 主하고 魂을 藏하는데 筋이 길러짐을 잃으면 온 몸의 筋骨이 아프고 魂 또한 갈무리 되지 않으므로 꿈을 꾸거나 잠을 잘 때 편안하지가 않으니 어찌 유정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內經』에서 이르기를 “氣가 견실하면 형체가 實하다” 하였으니 양이 허하면 견고하지 못하여 精門이 지키는 직책을 잃으니 이것이 遺精이 자꾸 발생하여 그치지 않는 이유이다.『內經』에서 이르기를 “신장은 胃의 관문이다”라고 하였으니 이제 만약 陽氣를 도와서 견고하게 하고 胃氣를 길러서 관문을 잘 지키게 하면 유정증이 그치지 않는 것을 걱정할 것이 없다. 드디어 인삼, 황기 각2돈, 백출1돈, 감초5푼, 지실, 향부자, 산사, 구자 각5푼을 써서 달여서 반년 동안 먹으면서 수시

29) 高爾鑫, 汪石山醫學全書 石山醫案,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95-96.

로 좁고 더움에 잘 대처하기 위해 좌사약을 바꾸고 조리를 잘하니 낫게 되었다.

본 醫案은 汪機가 脈과 證 두 가지 방면에서 陰虛와 陽虛를 감별한 것이다. 脈이 緩, 數한 것을 변별하고, 脈數無力한 자는 陰虛에 속하고, 脈緩無力한 자는 陽虛에 속한다. 변증방면에서 먹어도 바로 배가 고프며, 夢精하고, 잠이 편안하지 않으면 陰虛라고 잘못 알기 쉬우나 『內經』의 뜻에 근거하여 세밀하게 분석하고 陽虛에 속한다고 하여 의심의 여지없이 인삼과 황기로 치료하여 효과를 얻었다.

변증과 치료방법을 깊이 思考하였으며 동시에 본 醫案 중에서 명대에 丹溪의 뜻을 융통성 없이 추종하여 멋대로 寒涼한 약을 사용하는 것이 임상에서 적지 않은 폐해를 끼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³⁰⁾.

“一兒年十一에 色白神怯하고 七月間에 發熱連日이라 父令就學하야 內外俱勞하야 循至熱熾 頭痛하니 正合補中益氣湯症이어늘 失此不治하야 以致吐瀉하고 食少라 其父知醫하야 乃進理中湯하니 吐瀉少止나 漸次眼合하고 咽啞不言하며 昏昧不省人事라 粥飲有碍하고 手常搵住 陰囊爲 爲灸百會 尾軀나 不應일새 其父質於予라 予曰 兒本氣怯하고 又當 暑月過勞라 經曰勞則氣耗라하고 又曰勞 倦傷脾라하니 即此觀之컨대 傷脾之病也 라 身熱者는 經曰陽氣者는 煩勞則張이 라하니 蓋謂氣本陽和로대 或勞煩하면 則陽和之氣가 變爲邪熱矣오 頭痛者는 經曰諸陽이 皆會於頭라하니 今陽氣亢極 하면 則邪熱熏蒸於頭而作痛也오 吐瀉者는 脾胃之清氣不升하고 濁氣不降也오 目閉者는 蓋諸脈이 皆屬於目하고 而眼 眶이 又脾所主니 脾傷不能營養諸脈故로

眼閉而不開也오 咽啞者는 蓋脾之絡이 連舌本하고 散舌下하니 脾傷則絡失養하야 不能言也라 經曰脾胃者는 水穀之海니 五藏이 皆稟氣於脾라하니 脾虛則五 藏이 皆失所養故로 肺之咽啞이 爲之不利而食難咽이라 故로 心之神明이 爲之 昏瞶而不知人이오 常欲手搵陰囊者는 蓋 無病之人은 陰升陽降이나 一有所傷하면 則升者降 降者升이니 經曰陰陽反作이 是也라 是以로 陰升者降하야 從其類而 入厥陰之囊하야 因陰多陽少故로 手欲搵 之也니 此皆脾胃之病이라 經謂土極似木 하고 亢則害 承乃制也라 症似風木은 乃 虛象耳니 不治脾胃之土하고 而治肝木之 風이면 欲兒不死나 難矣라 且用參 芪 朮各三錢, 熟附一錢煎하야 用匙灌半酒 杯하고 候看如何라

服後에 病無進退어늘 連服二三日하니 神稍清하고 目稍開하며 如有生意나 食 仍難咽이라 予爲診之하니 脈皆浮緩하고 不及四至라 予曰 藥病相宜하니 再可減 去附子하고 服之라하니 漸漸稍蘇라 初 醫는 或作風熱施治하야 而用荊, 防, 芩, 連, 蠶, 蠅之類하고 或作驚痰 而用牛黃, 朱砂, 輕粉等藥하니 此皆損胃之劑니 豈 可投諸兒리오 今得生은 幸耳니 實賴其 父之知醫也라

或曰 經云無伐天和라하야늘 其症이 又 無四肢厥冷이오 時當酷暑而用附子는 何 也오 予曰 參 芪는 非附子면 無速效오 而經亦曰假者反之라하니 正如冬月에 而 用承氣之類니 此亦舍時從症之意也 라³¹⁾”

한 아이가 나이가 11살에 얼굴색은 희고 정신이 허약하며 7월 달인데 연일 열이 났다.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학교에 가게 하여 안팎으로 고생하여 점차 열이 치성하게 나고 두통증이 있었으니

30) 裘沛然, 丁光迪 主編, 中醫各家學說,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285.

31) 高爾鑫, 汪石山醫學全書 石山醫案,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00-101.

바로 보중익기탕증 이었는데 이 기회를 잃고 치료하지 않아 구토, 설사를 하고 음식을 잘 먹지 못했다. 그의 아버지가 의학을 알아 바로 이증탕을 먹이니 구토와 설사가 조금 그쳤으나 점차로 눈을 감고 병어리가 되어 말을 못했으며 정신이 혼몽하여 인사불성이 되었다. 죽이나 음료수도 먹일 수가 없고 손은 항상 음낭을 움켜쥐고 있었으며 백회와 미저혈에 땀을 뚫으나 반응이 없자 그의 아버지가 나에게 물어왔다. 내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이가 본래 氣가 아주 허약하고 또 무더위에 과로를 한 것이다. 『內經』에서 이르기를 ‘너무 과로하면 기운이 소모된다’라 하였고 또 이르기를 ‘勞倦하면 脾를 손상한다’고 하였으니 이로 보건대 脾가 손상된 병이다. 身熱이 나는 것은 『內經』에서 ‘陽氣는 煩勞하면 亢盛해진다’라고 하였으니 대개 氣는 본래 陽이 온화한 상태지만 혹 육체적으로 노동을 하고 정신적으로 변증(煩症)이 생기면 양의 온화했던 기가 변해서 邪熱이 됨을 이르는 것이다. 頭痛은 『內經』에서 ‘모든 陽은 다 머리에서 모인다’고 하였으니 지금 陽氣가 亢極하면 邪熱이 머리에서 熏蒸하여 두통이 생기는 것이다. 吐瀉는 脾胃의 맑은 기운이 올라가지 못하고 탁한 기운이 내려가지 못하는 것이다. 目閉는 대개 모든 맥이 다 눈에 연결되고 눈의 테두리는 또 脾가 主하니 脾가 손상되어 모든 맥을 영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눈을 감고 뜨지 못하는 것이다. 목구멍이 병어리처럼 된 것은 대개 脾의 낙맥이 舌本과 연결되고 舌下에 흠어지니 脾가 손상되어 낙맥이 영양의 공급을 잃어 말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內經』에서 이르기를 ‘脾胃는 水穀의 바다이니 오장이 다 脾에서 氣를 품부 받는다’고 하였으니 脾가 허약하면

오장이 모두 길러짐을 잃기 때문에 肺의 목구멍이 不利하게 되고 음식을 삼키기가 어렵게 된 것이다. 따라서 心의 神明이 혼미해져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게 된 것이다. 항상 손으로 음낭을 감싸쥐고 있는 것은 대개 병이 없는 사람은 陰이 올라가고 陽은 내려오나 만일 한 번 손상이 되면 올라가야 할 陰이 내려오고 내려와야 할 陽이 올라가니 『內經』에서 이르기를 ‘음과 양이 반대로 작용한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따라서 올라가야 할 陰이 내려와 그 類를 따라 腎음의 음낭 속으로 들어가 陰多陽少하게 되어 손으로 감싸고자 하는 것이니 이상의 것은 모두 脾胃의 병이다.

經(이 말은 내경에 없고 유하간의 학설이다)에서 이르기를 ‘土의 기운이 極하게 되면 木의 증상처럼 나타난다’고 하였고 ‘하나의 기운이 亢極하여 사물을 해치면 아래에서 承하는 기운이 항극한 기운을 제압한다’라고 하였으니 증상이 風木과 같은 것은 虛像일 따름이니 脾胃의 土를 치료하지 않고 肝木의 風을 치료하면 아이가 죽지 않기를 바라지만 어렵게 될 것이다.” 이에 우선 인삼, 황기, 백출 각3돈, 숙부자1돈을 달여 숟가락으로 술잔의 반잔 정도를 넣고 어떠한지를 지켜보았다.

복용한 뒤에 병이 차도가 없자 연속해서 2,3일을 먹이니 정신이 조금 맑아지고 눈을 조금 떴으며 생기가 있는 것 같았으나 음식은 여전히 삼키지 못했다. 내가 진찰을 해보니 맥은 모두 浮緩하고 4번 이르지도 아니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약과 병이 서로 맞으니 다시 부자를 줄이거나 빼고 복용할 것이라”고 하였더니 점차로 소생하였다. 처음 의사는 風熱이라고 여겨 치료하여 형개, 방풍, 황금, 황련, 백강잠, 전갈 등

을 썼고 혹자는 驚痰이라고 여겨 우황, 주사, 경분 등의 약을 썼으니 이것들은 모두 胃를 손상시키는 약제니 어찌 가히 아이에게 쓸수 있는 것이리오. 이제 살아난 것은 요행일 따름이니 실상은 그의 아버지가 의학을 알았음에 도움을 받은 것이다. 혹자가 말하기를 “『內經』에서 이르기를 天和를 처서는 안된다”고 하였는데 그 증상이 四肢厥冷증도 없고 때가 무더위가 심한 때였는데 부자를 쓴 것은 어찌서 인가” 내가 말하기를 “인삼, 황기는 부자가 아니면 속효를 보지 못하고 『內經』에서 또 이르기를 ‘假熱, 假寒증은 반대로 약을 써야 한다.’라고 하였으니 정히 한겨울에 승기탕을 쓰는 類니 이 또한 때를 무시하고 증상을 쫓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본 醫案은 소아의 품부가 양허하고 內外가 기진맥진하여 氣虛發熱이 되었을 때 勞者는 溫한다 하여 甘溫한 약제로 熱을 제거한 것이다. 의사들은 虛實寒熱을 관찰하지 않고 祛風, 淸熱, 熄風, 化痰의 약을 투여하여 陽氣를 더욱 손상시켜 병을 심하게 하여 토하고 설사하며, 정신이 혼미한 위험한 증상이 번갈아 나타나게 된 것이다. 汪機는 本病의 관건은 脾가 상한 것으로 여기고 土氣가 不足하여 여러 증상이 어지럽게 일어난 것으로 병세가 위중하여 인삼과 황기 外에 부자를 佐藥으로 삼았다. “參芪는 非附子면 無速效라”하여 인삼과 황기를 사용할 때 附子가 없으면 효과가 빠르지 않다고 하였는데 酷暑였지만 피하지 않고 사용하여 重證을 면할 수 있게 하였다³²⁾.

“一婦年三十餘에 性躁多能이나 素不孕育하고 每啜粥畏飯하며 時或心痛이러니 春正忽大作이라 或作氣而用香燥하며 或作痰而用二陳하며 或作火而用寒冷이라

因糞結進潤腸丸하니 遂泄不禁하고 小便不得獨利하며 又發寒熱한대 熱則咳痰不止하고 寒則戰栗鼓頷이라 肌肉瘦削하며 皮膚枯燥하며 月水不通하며 食少惡心하고 或煩躁而渴하며 或昏昏嗜臥하며 或小腹脹痛에 諸治罔效라 醫皆視爲死症하고 詣請予하야 往治之하니 右脈浮大弦數하고 左脈稍斂而數하며 熱來에 左右脈이 皆大而數하고 寒來에 脈皆沉微하야 似有似無라

經言脈浮爲虛오 脈大必病進이라하고 丹溪謂脈大如蔥管者는 大虛也라하니라 經又謂弦脈屬木하니 見於右手면 肝木克脾土也라하고 又以數脈所主爲熱甚하고 症爲虛하며 左脈稍斂者는 血分病輕也라 今患素畏飯者는 是胃氣本弱矣오 心痛은 即胃脘痛이니 由脾虛不運故로 胃脘之陽이 不降鬱滯而作痛也오 瀉泄不禁하고 小便不得獨行者는 蓋陽主固하고 且經言膀胱者는 津液之府니 氣化則能出矣라하니 今陽虛不固於內故로 頻泄也며 膀胱氣虛不化故로 小便不能獨行也라 又寒熱互發者는 蓋氣少不能運行而滯於血分故로 發熱하고 血少不得流利而滯於氣分故로 發寒이니 仲景曰 陽入於陰則熱하고 陰入於陽則寒이 是也라 寒則戰栗鼓頷者는 陰邪入於陽明也오 熱則咳痰不已는 陽邪入於陽明也니 此則陰陽兩虛故로 相交並而然也라 肌肉瘦削者는 蓋脾主身之肌肉하니 脾虛食少故로 瘦削也오 皮膚枯燥者는 經曰脾主於胃行其津液이니 脾虛不能運行津液하야 灌溉於肌表故로 枯燥也오 月水不通者는 經曰二陽之病은 發心脾하고 男子少精하며 女子不月이라 하니 二陽은 手足陽明이니 腸與胃也라 陽明虛하면 則心脾가 皆失所養하야 而血不生故로 不月也오 食少惡心하며 躁渴 嗜臥는 皆脾胃所生之症也라 小腹脹痛者는 乃陽虛下陷使然也니 經曰陽病極而下가 是也라

32) 裘沛然, 丁光迪 主編, 中醫各家學說,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285-286.

乃用人參五錢，黃芪四錢，白朮三錢爲君하고 升麻八分，茯苓一錢，豬苓，澤瀉，各七分爲臣하고 蒼朮五分，香附七分爲佐하고 歸身七分，麥門冬一錢爲使하여 煎服三帖이나 不效라 一醫曰 此病不先驅邪하고 一主於補하니 所謂閉門留賊이라하고 一醫曰 此屬陰虛火動이어늘 今不滋陰降火而徒補氣하니 將見氣愈盛에 火愈熾矣라하니라 風鑿은 相其夫曰 奸門清白하니 必主喪妻라하고 日者는 推其命曰 運限俱倒하니 其死必矣라하니라 其夫皺眉告予曰 每日扶之호대 似身漸重하고 皮枯黑燥하니 恐不濟矣리라 하니라

予思仲景有曰泄利不止는 五藏之陽이 虛於內오 寒熱互發은 六府之陽이 虛於外라하니 是則內外兩虛니 在法不治나 所恃者는 年尚壯하여 能受補而已라 但病家是 寧可於死中求活이니 豈可坐以待斃리오 且補藥은 無速效니 今服藥이 不滿四五劑니 即責以效면 豈王道之醫乎아 因令勉服前藥六七帖하니 寒已除나 但熱不減하고 汗出不至足라 令壺盛熱水蒸其足하니 汗亦過於委中矣오 續後前症漸減하고 始有生意라

追思컨대 醫謂先去邪者는 因其寒熱往來也라 然이나 去邪不過汗，吐，下三法이로대 今病自汗，吐痰，泄利三者俱矣니 再有何法而施乎아 且病有實邪하며 有虛邪하니 虛可補而實可瀉로대 今病屬虛어늘 而以實邪治之면 虛虛之禍를 咎將誰歸오 謂當滋陰降火는 因其月事不通하고 病發於夜也라 且服降火藥하면 遂小腹脹而大便泄하리니 是不宜於此矣라 殊不知滋陰降火는 皆甘寒苦瀉之劑니 今病食少，泄利，明是脾虛라 且脾胃喜溫而惡寒하니 今泥於是면 寧不愈傷其胃而益其泄乎아 籲危哉로다 故로 不敢不辯이로다³³⁾

한 부인이 나이는 30여세에 성격이 조급하고 능력은 많으나 평소에 임신을 하지 못하고 매양 죽만 먹고 밥먹는 것을 두려워하며 때로 혹心痛이 있더니 봄 정월에 갑자기 증상이 크게 발작하였다. 어떤 의사는 氣로 보아 香燥한 약을 쓰고, 어떤 의사는 痰으로 보아 二陳湯을 쓰고, 어떤 의사는 火로 보아 寒冷한 약을 썼다. 대변이 굳어 윤장환을 쓰니 드디어 설사가 그치지 않고 소변이 나오지 않으며 또 한증과 열증이 발작하는데 열이나면 기침과 가래가 그치지 않고 한증이 생기면 온몸을 떨고 턱을 덜덜 떨었다. 몸이 마르고 피부가 마르고 건조하며 월경이 나오지 않고 음식을 적게 먹고 惡心증이 있고 혹 煩躁하면서 목이 마르고 혹 정신이 흐려지며 잠을 많이 못자고 혹 아랫배가 부풀면서 아픈데 모든 치료가 효과가 없었다. 의사들이 모두 死症이라 생각하고 나에게 와서 청함으로 가서 치료를 하였다. 오른쪽맥은 浮大弦數하고 왼쪽맥은 약간 수렴이 되면서 數하며 열이 날 때는 左右脈이 모두 大而數하고 한증이 올 때에는 맥이 모두 沈微하여 있는 듯 없는 듯 하였다. 經에서 말하기를 “맥이 浮하면 허증이요 맥이 大하면 반드시 병이 진행된다”라고 하였고 주단계는 “맥이 大한 것이 枵의 管과 같은 것은 大虛이다”라고 하였다. 經에서 또 이르기를 “弦脈은 木에 속하는데 오른손에서 나타나면 肝木이 脾土를 克한 것이다”라고 하였고 또 數맥이 主하는 것은 심한 熱이고 증상은 허증이며 왼쪽맥이 약간 수렴된 것은 血分의 병이 가벼운 것이다. 지금 환자가 평소에 밥 먹기를 두려워 하는 것은 胃氣가 본래 약한 것이고 心痛은 胃脘痛이니 脾가 허약해서 運化를 못하기 때문에 胃

33) 高爾鑫, 汪石山醫學全書 石山醫案, 北京, 中國中醫藥

出版社, 1999, p.102-103.

腕의 陽이 내려가지 않고 울체되어 통증이 생긴 것이다. 설사가 그치지 않고 소변이 나오지 않는 것은 대개 陽은 건고하게 함을 主하고 또 『內經』에서 말하기를 “방광은 진액의 府인데 기화작용에 의해 소변을 내보낸다”라고 하였으니 지금 陽虛하여 안을 건고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설사를 자주하는 것이며 방광이 氣虛해서 기화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소변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또 한증, 열증이 번갈아 발작하는 것은 대개 氣가 부족해서 능히 운행하지 못해서 血分에 울체되어 있기 때문에 발열을 하고 血이 부족하여 잘 돌지 못하여 氣分에 울체되어 있기 때문에 한증이 발생한 것이니 중경이 이르기 “양이 陰分에 들어가면 열이 나고 음이 陽分에 들어가면 한증이 생긴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 한증이 생겼을 때 몸을 떨고 턱을 떠는 것은 陰邪가 양명경에 들어갔기 때문이고 열이 날 때 咳嗽와 痰이 그치지 않는 것은 陽邪가 양명경에 들어간 것이니 이것은 음양이 모두 허하기 때문에 서로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몸이 마르는 것은 대개 脾는 몸의 肌肉을 주장하니 脾가 虛해서 음식을 적게 먹기 때문에 마르게 된 것이고 피부가 마르고 건조하게 된 것은 『內經』에서 이르기 “脾는 胃가 진액을 행하는 것을 주관하니 脾가 허약해서 진액을 운행하지 못하여 肌表에 까지 공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르고 건조하게 된 것이다.” 월경이 나오지 않는 것은 『內經』에서 이르기 “二陽의 병은 心脾에서 생기고 남자는 精이 적게 되고 여자는 월경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二陽은 수양명, 즉 양명이니 大腸과 胃이다. 양명이 허해지면 心脾가 모두 기르는 바를 잃게 되어 血이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월경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음식을 적게 먹고 惡心하며 躁急하고 갈증이 나며 잠을 많이 자는 것은 모두 脾胃에서 생겨나는 증상이다. 小腹이 창만하며 아픈 것은 陽虛下陷해서 그렇게 된 것이니 『內經』에서 “陽病이 심해지면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이에 인삼5돈, 황기4돈, 백출3돈을 군약으로 하고 승마8푼, 복령1돈, 저령, 택사 각7푼을 신약으로 하고 창출5푼, 향부자7푼을 좌약으로 하고 당귀신7푼, 맥문동1돈을 사약으로 하여 달여서 3첩을 먹었으나 효과가 없었다. 한 의사가 이르기를 “이 병에 먼저 사기를 몰아내지 않고 한결같이 보법만 쓰니 이른바 문을 닫고 도적을 머무르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한 의사는 이르기를 “이 병은 음허화동에 속하는데 이제 자음강화를 하지 않고 오로지 補氣만을 하니 장차 기가 더욱 성해지면서 火가 더욱 치성해질 것이다”라고 하였다.

관상 보는 사람은 그 남편의 相을 보고 “奸門이 맑고 희니 반드시 상처할 상이다”라고 하였고 길흉을 점치는 사람은 그의 운명을 추리하여 이르기를 “운수가 다 끝났으니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의 남편이 눈썹을 찡그리며 나에게 고하기를 “매일 부축해보면 몸이 점점 무거워 지는 것 같고 피부가 마르고 검고 건조하니 아마 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생각하기를 “중경이 설사가 그치지 않는 것은 오장의 陽이 안에서 허해진 것이고 寒과 熱이 번갈아 발생하는 것은 육부의 陽이 밖에서 허해진 것이라 하였으니 이것은 안과 밖이 모두 허해진 것이니 치료할 방법은 없으나 믿는 바는 나이가 아직 젊어 능히 補하는 것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단지 환자는 차라리 죽는 한이 있더라도 살리기를 구해

야 하니 어찌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리오. 또한 보약은 효과가 빠르지 않으니 지금 약을 먹은 것이 4,5첩에도 이르지 않았으니 효과를 바란다면 어찌 王道의 의학일 수 있겠는가”라고 여겼다. 인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앞의 약을 6,7첩 먹이도록 하니 한증이 제거 되었으나 단지 열증이 감소되지 않고 땀이 나는 것이 발에까지 이르지 않았다. 사람들에게 대야에 뜨거운 물을 담아 그녀의 발을 뜨겁게 하니 땀이 또한 위중혈을 넘었고 뒤이어 앞의 증상들이 점차 감소하면서 비로소 생기가 돌아왔다. 뒤쫓아 생각해보건대 “의사가 ‘먼저 사기를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이른 것은 한열이 왕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기를 제거하는 것은 汗, 吐, 下의 3법을 벗어나지 않는데 지금의 병은 自汗, 吐痰, 泄痢의 3가지가 갖추어져 있으니 다시 무슨 법을 베풀 수 있겠는가. 또 병에는 實邪가 있고 虛邪가 있으니 허하면 補하고 實하면 瀉하되 지금의 병은 허에 속하는데 實邪로 여겨 치료하면 虛한 것을 더욱 虛하게 한禍를 장차 누구에게 허물을 돌리리오. ‘마땅히 자음강화해야 한다’라고 이른 것은 월경이 불통하고 병이 밤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한 降火藥을 복용하면 드디어 小腹이 창만하면서 설사가 나게 되니 여기에는 마땅한 치료법이 아니다. 이것은 자음강화는 모두 甘寒苦瀉하는 약제라는 것을 너무도 모르는 것이다. 지금의 병은 음식을 잘 먹지 못하고 설사를 하니 분명히 脾虛증이다. 또 脾胃는 따뜻한 것을 좋아하고 찬 것을 싫어하니 지금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어찌 더욱 胃를 손상시켜 설사가 심해지지 않겠는가. 위험을 부르는 것이로다. 그래서 감히 변별하여 말하지 않을 수가 없도다.

본 醫案의 증상은 寒熱, 咳痰, 脘腹痛, 便秘, 食少惡心 등의 증상이 뒤섞여있다. 앞서 여러 의사들이 香燥하고 苦寒한 약으로 치료하여 설사가 끊이지 않고 혼수상태에 빠져 잠을 자며 병이 심해졌다. 汪機는 察色하고 脈을 보아 氣虛의 문제로 보고 각종 증상을 상세히 살펴 氣虛에 속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인삼과 황기로 치료하여 낫게 하였다. 그 중 다른 의사들이 주장한 滋陰降火, 去邪에 대해서 변론비판 한 것이 더욱 합리적이며 진실로 합당하다. 이치를 분석한 것이 명쾌하고 말한 내용이 모두 근거가 있다³⁴⁾.

III. 結 論

汪機의 字는 省之이고, 明 天順7년(1463년)에 출생하여 嘉靖18년(1539년) 까지 살았다. 新安醫學의 代表醫家 중 한 명으로 安徽省 祁門縣 사람이다. 환자의 狀態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여 內科雜病, 外科, 脈學, 鍼灸, 痘疹, 運氣 등 여러 方面에서 臨床經驗이 豊富하였으며 학술적인 造詣가 깊었다.

당시 盛行하던 朱丹溪의 ‘陽有餘陰不足論’을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나타나 元氣를 손상시키는 폐해가 발생하였다. 모든 疾病을 陰虛라고 여겨 甘溫助陽藥을 사용하지 못하고 滋陰藥을 濫用하는 弊端을 바로잡기 위하여 營衛論을 主張하였다. 朱丹溪의 ‘陽有餘陰不足論’은 오로지 陰虛로만 생각하여 論治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陽有餘의 陽은 氣로 보았고, 陰不足은 營氣의 不足으로 보았다. 朱丹溪의 陰虛는 陰인 營을 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營은 營氣로 보아 陽에 속한다고 主張하여 人蔘과 黃芪로 治療해야 한다고 하였다.

汪機는 仲景의 氣血虛弱은 人蔘으로 補한다는 主張과 東垣의 血脫하면 氣를 補하여야 한다는 主張을 引用하여 人蔘과 黃芪가 補陽할 뿐만

34) 裘沛然, 丁光迪 主編, 中醫各家學說,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286.

아니라 補陰한다는 것을 主張하였다. 人蔘과 黃芪 등의 補氣藥物을 복용하면 害가 된다고 主張한 王綸의 『明醫雜著』를 반박하기 위하여 『石山醫案·辨明醫雜著忌用參芪論』에서 丹溪가 人蔘과 黃芪를 사용하여 治療한 實例를 반복적으로 列舉하였다. 또한 人蔘과 黃芪의 危害를 없애기 위하여 黃芩과 黃連 같은 藥으로 溫한 성질을 輕減시키고, 枳實과 厚朴 등을 佐藥으로 사용하는 등 人蔘과 黃芪를 다른 藥物과 能熟하게 配伍하여 使用하였다. 이렇게 人蔘과 黃芪의 補陰血을 重視한 것은 汪機의 獨창적인 見解이다.

汪機는 『內經』의 “邪之所在 皆爲不足”과 “正氣存內, 邪不可干” 등의 理論에 根據하여 모든 病의 根源은 營氣가 虛한 것이라고 여겼다. 扶正固本하는데 營氣를 補하는 것이 重要하다고 主張하였다. 營氣는 脾胃水穀의 氣로부터 生하므로 대부분의 疾病은 脾胃에 의하여 發生하게 된다는 李東垣의 脾胃學說을 발전시켜 營氣와 脾胃의 關係를 強調하였다. 이러한 補營說을 後世 사람들은 ‘培元固本’이라고 한다.

汪機는 朱丹溪의 陽有餘陰不足論의 影響으로 많은 사람들이 滋陰降火를 위해 苦寒한 藥을 妄用하는 폐단에 젓어 있을 때 人蔘과 黃芪로 培元固本하고 溫養하는 治法을 제시하여 明代後期에 溫補學派가 出現할 수 있는 중요한 加역할을 한 명대 中葉의 新安醫學을 代表하는 醫家 中的 한 人이라 말할 수 있다.

參考文獻

1. 儲崇華 主編, 新安醫籍叢刊, 中國 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1995.
2. 高爾鑫, 汪石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3. (清)永瑤等撰, 四庫全書總目 上冊, 北京, 中華書局出版, 1965.
4. 裘沛然, 丁光迪 主編, 中醫各家學說,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5. 윤창열, 韓中醫學各家學說, 주민출판사, 2006.

6. 全國韓醫科大學原典學教室, 類編黃帝內經, 大田, 周民出版社, 2005.